



본회 35번째 지회로 전북 완주 등록

- 완주지회 창립, 초대지회장엔 장갑선氏 -

지난 3월 11일 본회 35번째 지회로 완주지회가 전주완주축산농협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지역 양록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결의했다. 창립총회에는 50여명의 회원과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지역 협회원의 이익과 단합, 그리고 지속적인 양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본회 김은성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금의 어려운 양록환경 속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양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분명히 양록환경은 밝아질 것”이라며, “35번째로 창립된 완주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양록업 발전을 위해 전국지회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배옥 전주완주축산농협장은 축사를 통해 “양록업은 미래지향적 축산으로 각광 받고 있는 유망산업임을 익히 알고 있다.”며 지역의 양록인들이 다른 양축농가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 경영자금 지원상담 등 농협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완주지회는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초대지회장과 임원진 등을 구성했다. 지회장 후보로는 이철수회원과 장갑선회원이 추대되었으나 이철수회원이 협회 감사를 맡고 있고 다른 직책 등으로 지회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기 힘들다며 후보추대를 사양했다. 따라서 장갑선회원이 단독으로 추대되어 회원들의 만장일치를 통해 완주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장지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 지역 양록인의 화합과 단결, 지역 행정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완주지회 초대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지회장 장갑선 ▲ 부지회장 주종연
▲ 사무장 윤지호 ▲ 운영위원 이철수, 정영천, 정원영

한편, 완주지회 회원들은 지난해 9.11 범양록인결의대회 및 지역양록산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김배옥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양록**